

대구주보

연중 제30주일
2020. 10. 25. (가해) 제2238호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37-39 참조)



『착한 사마리아인』, 야코포 바사노, 1562~1563, 영국 런던 국립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진목정성지 담당 | 김용범 그레고리오 신부

우리는 자주 '하느님을 볼 수만 있다면, 느낄 수만 있다면, 체험할 수 있다면, 내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고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염원은 또한 그리스도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체험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에게서 하느님의 향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그런 신앙은 공중에 붕 뜬, 토대가 없는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자로 살긴 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성당 다니는 보람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짐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느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마음을 사람들과의 관계, 일거리들, 각종 교육과 피정미수라는 것들로 채워 대리 만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례는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1독서는 일상 안에서 만나는 이들, 특히 우리와 무관한 이들에게 조차도 배려와 사랑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야 어떠하건 간에 그들의 처지를 내 처지처럼 헤아리고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2독서는 그런 우리의 선하고 자비로운 행실이 곧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느끼게 하고, 그 감동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이웃들에게 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일상 안에서 사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사는데 힘을 쏟기보다 성당을 다니는데 힘을 쏟고 살기에, 나 또한 그들과 떨어질 수 없어서일 것입니다.

복음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must) 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Ubi Caritas et amor.”(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삶 안에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더 열심히 가꾸어봅시다. 하느님을 만나 내 신앙도 충만해지고 하느님의 향기도 풍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 편이십니다. **필문**

세대 간 정의

교구 비서실장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벨 평화상 유력 후보였던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행동가입니다. 2018년 여름,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 나가 기후 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열일곱 살 소녀의 작은 행동은 전 세계 청소년 수백만 명이 기후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세계적 생태 환경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살게 될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물려달라는 미래 세대의 간절한 호소 앞에서 저는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강조한 “세대 간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회칙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구라는 공동의 집은 “각 세대가 빌려 쓰는 것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창조세계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주어질 선물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점에서 세대 간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의 윤리적 책임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관심사에만 매달려 생태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

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배출되면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 분해되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걸리는 플라스틱, 결국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문제를 떠안게 되는 미래 세대는 우리를 원망하며 위험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후손을 걱정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희망’만 이야기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자식에게 빚을 남겨 주려 하지 않듯이, 우리가 책임 있는 세대가 되려면 미래 세대에게서 미리 앞당겨 쓴 것을 갚아가며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갓고 살아야 합니다. 산업화 이후 우리가 외적인 발전을 ‘더하는데’ 주력해 왔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는 ‘덜셈’ 대신 ‘뺄셈’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태 발자국’을 줄여나가며 미래 세대에게 적은 부담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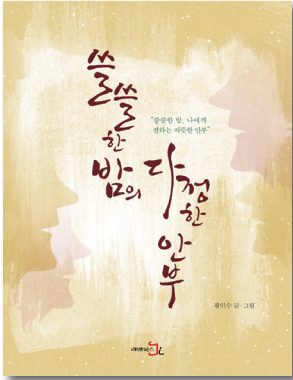
현재 세계는 과거부터 인류가 선택한 것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세계는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깨달은 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

쓸쓸한 밤 나에게 전하는 따뜻한 안부 **쓸쓸한 밤의 다정한 안부**

고독한 삶에 전하는 따뜻한 위로

최근 코로나19로 인간의 고립감과 무력감을 실감하기도 했지만 연대감, 다정함을 더 강하게 절감하였다. 마음을 담은 정겨운 안부를 주고받기가 쉽지 않은 이즈음, 레벤북스의 첫 신간 「쓸쓸한 밤의 다정한 안부」를 통해 세상이 따뜻하고 훈훈해지기를 빌어 본다. 세상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 힘들 때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포근하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팟캐스트 “수도원 책방”으로 널리 알려진 성바오로수도회 한국 준관구장 황인수 이나시오 신부가 20여 년 동안 틈틈이 쓴 글과 그림 60편을 모은 이 책은 인생의 사계절을 봄·여름·가을·겨울로 연상하며 인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생애를 진지하지만 경쾌하게, 쓸쓸해 보이지만 다정하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기쁜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쓰고 그리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특별히 책을 맛있게 읽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QR 코드’를 이용하여 멋진 클래식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황인수 지음 · 그림 | 138면 | 12,000원 | 레벤북스(성바오로수도회)

바오로딸 수녀들의 기도노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어**

수녀들의 생생한 기도와 찬양

‘바오로딸 수녀들의 기도 노래 시리즈’ 네 번째 음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어>가 나왔다. 이번 음반의 가장 큰 특징은 수녀들의 기도와 삶이 녹아 있는 수도회의 본원 대성당에서 자연스러운 울림을 최대한 살리며 악기와 동시 현장 녹음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수녀들과 연주자가 함께 호흡하며 찬미하는 실황을 녹음하였기에 생생한 기도와 찬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소외와 단절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자신을 동반하는 이가 있음을 느끼고,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곡 한 곡마다 묵상과 체험을 나누며 자신의 신앙과 삶, 온 존재가 노래에 고스란히 담기도록 노력하였다. 조용히 주님 안에 머물고 싶을 때, 삶에 지친 이들이 편안한 휴식을 누리고 싶을 때 이 음반을 들으며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하느님 안에서 사는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수녀들의 찬양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로움, 그분과 나누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다.



성바오로딸 수도회 노래 | 56:31 | 13,000원 | 바오로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1760~1801년)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티노는 1760년 경기도 광주의 마재(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1839년에 순교한 유조이 체칠리아 성녀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고, 1801년에 순교한 정철상 가롤로와 1839년에 순교한 정하상 바오로 성인, 정정혜 엘리사벳 성녀는 그의 아들과 딸이다. 아우구스티노가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2년 후인 1786년에 형으로부터 교리를 배우면서였다. 이후 천주교 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된 아우구스티노는 세례를 받고 교리 연구나 가족들을 가르치는 데 전심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우구스티노의 열심은 더욱 빛을 발하여 인근 지역의 신자들과 자주 교류하였으며, 자신의 집에서 교우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였고, 직접 교회 일에도 참여하였다. 1794년 말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아우구스티노는 자주 한양으로 올라가 성사를 받았고, 신부와 교우들을 도와 교회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또 오랫동안의 교리 연구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한글 교리서인 <주교요지> 두 권은 주 신부의 인가를 얻어 교우들에게 널리 보급하였고 주 신부에 의해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1801년 신유박해가 발생하면서 교회 전체가 위협에 처하게 되었고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책 상자가 관청에 압수되자 음력 2월 11일에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이튿날부터 아우구스티노는 엄한 형벌과 문초를 받아야만 하였다.

“천주를 높이 받들고 섬기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 천주는 천지의 큰 임금이요 큰 아버지입니다. 천주를 섬기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천지의 죄인이며,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박해자들은 아우구스티노를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교리는 오히려 박해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아우구스티노는 체포된 지 15일 만에 형장으로 정해진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다. 이때 그는 사형수가 타는 수레에 올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울음은 진정한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들의 즐거운 웃음은 진정한 고통으로 변할 것이지요.”

형장에 이르러 참수형이 시작되었을 때 아우구스티노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며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탈출 22,20-26	제 2 독 서	1테살 1,5-10	복 음	마태 22,34-40.
화 답 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모집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으로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2년의 과정을 마친 후 정식으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한 : 2020. 11. 2(월) ~ 13(금) / 인터넷 접수 : <http://cu.ac.kr>
문의 : 053)660-5111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 : 2020. 11. 2(월) ~ 13(금)

대상 :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 무관)

강의 : 월, 목요일 야간 (남산동 유스티노캠퍼스)

혜택 : 모든 학생에게 50% 장학금 지급

문의 : 053)660-5253~4 / 010-6563-0409
<http://spgr.cu.ac.kr>

완전한 사랑이란
박성규 엘리지오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6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의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0월 27일(화) 14:00 신암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26일(월) 11:00 도량성당		10월 27일(화) 19:30 다사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6일(월) 11:00 계산성당		10월 28일(수) 10:00 죽도성당
-	-		10월 28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성소 | 피정

한국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1.1(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19세~35세
문의: (010)9937-0901

목주 기도 피정

일시: 매주 목 11:00~16: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0:00
토요성령기도회: 매주 토 14:00~17:30
문의: (010)9045-0191

교육 | 모집 | 기타

효성초등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일시: 11.16(월)~20(금) 9:00~16:30
대상: 2014.1.1.~12.31 출생 아동,
조기입학자 및 2020년 취학의무유예자
설명회: 11.7(토) 10:30, 셋별관
문의: 720-5500(사전예약)

마리아유치원 2021학년도 입학설명회

일시: 11.6(금) 10:30
장소: 마리아유치원 강당
대상: 2016.1.1~2017.12.31 출생자
접수: 11.18(수)~20(금)
방법: 온라인_처음학교로 / 문의: 745-2091

대건고등학교 2021학년도 입학설명회

일시: 11.21(토) 14:00
장소: 대건고등학교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기회균등전형(국민기초, 차상위 등)입학 시
전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개강: 11.24(화)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780-4535

그레고리오성가 강좌(5기) 모집

개강: 11.1(일) 14:00(45주)
장소: 삼덕동 툇쯔베네딕도수녀원
베네센터 1층 강의실
내용: 기본이론(15주) 및 실습(30주)

문의: (010)2805-8504

가르멜재속회 지원자 모집

마감: 1월 모임 전 / 대상: 55세 이하
첫째주 일요일탐: (010)3308-1004
첫째주 월요일탐: (010)4525-2467
넷째주 일요일탐: (010)6549-1852
넷째주 월요일탐: (010)3532-733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이데오피스·문구

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증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정맛
수녀원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ood.co.kr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3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SM 수맥 **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 1588-5335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평의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렐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치질 내시경 건강검진
(위·대장)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노성균 아우구스노

산격시장 앞 053-959-7175
010-9597-7175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 위령의 날 미사

- 11.2(월) 10:00 교구청 성직자 묘지
- 11.2(월) 11:00 군위 묘원
- 11.2(월) 11:00 범물동 묘원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신상조(스테파노) 신부
1985년 10월 26일

행사 | 모임

위령의 날 낙산묘원 미사

코로나19 확산으로 묘지 미사는 없으며, 본당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일시: 11.2(월) 11:00
문의: 비산성당, 564-1004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10.29(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박 소피아 수녀 한국화전

일시: 11.2(월)~14(토)
장소: 남대영기념관 빠리니홀
문의: 629-1117

교육 | 모집

2021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채용 | 안내

범어대성당 전기·설비 유지 유경험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주임신부 추천서
근무지: 범어대성당
문의: 범어대성당, 790-1300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
문의: 간호과, 320-2750
http://www.tcmch.co.kr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영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군위묘원 위령의 날 미사 안내

일시: 11.2(월) 11:00, 성직자묘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구 버스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 국밥 판매를 하지 않으니
개인도사락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2차 관리비 및
사용기간 만기 분묘 안내

· 2011.1.1 이전 장례하신
묘주께서는 관리비 납부바랍니다.
· 분묘사용 30년이 된 묘주께서는
관리과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근필, 박현정, 서정란(요안나)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사전서류접수: 10.26(월)~11.6(금)
- 제출방법: 문화홍보국 방문 또는 우편
- 주보광고접수: 11.26(목)
- 장소: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문안
-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터 익일까지)

광고접수시간 예고 |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사전에 진행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www.theopen-daegu.co.kr **관절! 춤추게 하라!**
다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신속 확장 이전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_투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 / 의학박사 (현 연세대 외래교수) **박종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 · 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한투어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랑스치교)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진동 학회장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씩**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ALL-A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 친구)
수심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요한 1,2)
전인병원
☎ 대표전화 | 1688-7667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천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